

오늘은 1년에 한번, 불교교리 실력을 맘껏 뽐내는 날

전국서 제3회 불교교리경시대회 개최

“오랜 만에 느껴보는 시험 분위기가.”
 “이상하게 긴장되네...”
 육군 제17사단 연주사(주지 김대성) 법당. 시험대 열 책상에 앉은 군장병들이 수근 거렸다. 시험장이 된 군법당은 대학 수능시험장 못지않게 긴장감이 뿜 뿜 나왔다.

제3회 전국 청소년 불교교리경시대회가 8월 29일 전국에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지난해부터 초·중·고 학생들과 함께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 군장병들의 자세는 사뭇 진지했다.

오전 11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13개 지역 고사장과 22개 군법당에서 시험이 동시에 시작됐다.

이날 연주사 법당에는 불교교리경시대회장인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운영위원장 자광 스님(군종특별교구장),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김용현 17사단장이 격려차 방문했다.

자승 스님은 “대상 수상자가 포함된 부대에는 중대가 회식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회식비를 지원하겠다”며 “국방의 의무에 전념 하는 동안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아, 지금 이 순간이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보람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연주사 신도들은 1000만원을 모아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 불사기금’으로 전달했다. 가톨릭 신자인 김용현 사단장도 연무사 불사기금 조성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김용현 사단장은 신병들의 종교선택과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교는 민족종교로 가장 친근한 종교이다. 연무사가 신병들의 정신적 위안이 많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주최 측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과 주관단체인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회장 도후), 동련(이사장 심산),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자광), 동국대(총장 김희욱)에서도 군장병 교리경시대회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000여 군장병 응시생에게 조계종 출판사 <불교입문>을 무료 보시하고, 기출예상문제집도 배포했다. 또 수상자에게는 휴가와 상급까지 전달하는 등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통해 참여를 유도했다.

군장병 부문 교리경시대회는 내년부터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자승 스님은 이날 기자들과 만남의 자리에서 “내년에는 군장병 5000여 명이 참가할 수 있도록 행사규모를 늘리겠다. 슈퍼스타K 프로그램처럼 활성화 시키겠다”며 군장병 불교교리경시대회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 동국대에서 초등부 퀴즈대회(골든벨 형태) ‘범종을 울려라’가 개최됐다. 예선을 통과한 학생들이 참가한 초등부 퀴즈대회는 청소년 불교교리경시대회를 축제 분위기로 만들었다. 한 문제 한 문제를 풀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거나 아쉬움을 내비치는 등 즐거운 장면들이 연출됐다. 또 퀴즈대회 진행 중에는 댄스 경연 및 공연 등이 함께 기획돼 어렵고 지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없앴다.



초등부 불교교리경시대회는 서울 동국대 체육관에서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됐다. 3749명 초등부 응시자 가운데 350명이 본선에 진출해 ‘도전 범종을 울려라’에 참가했다. 초등학생이 정답을 적은 화이트보드를 자신있게 들어보이고 있다.

올해도 대상을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부분은 역시 평소 신생활들이었다.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어린이 자주 듣지 못하는 단어인 ‘칠정례(七頂禮)’였다.

초등부 대상을 거머쥔 대구 관음사 구미도량 이해진 학생(구미 송정초 6)은 끝내 눈물을 보이며 소감을 말했다. 이해진 학생은 “평소 꾸준히 절에 다니면서 선생님께 들었던 것이라 어렵지 않게 풀었다”며 “부모님과 주말마다 법당에서 지도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최우수상은 서울 조계사 최보문 학생(해남초 6)과 지난해 초등부에서 대상을

차지한 서울 청룡사 안현준 학생(명신초 4)에게 돌아갔다.

제3회 전국 청소년 불교교리경시대회는 2009년 제1회 대회에 비해 모든 면에서 규모가 커졌다. 제1회부터 평균 3000여 명씩 증가해 올해는 8300여 명이 응시했다.

내년부터는 수상자에게 장기적인 장학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1회성 행사가 아닌 장기적인 인재 육성에 나선다.

이번 제3회 경시대회에는 군장병과 고등학생 부문에서 응시생이 1000여 명씩 증가했다. 대상에게 주



제3회 불교교리경시대회에서는 1000여 군장병이 응시해 눈길을 끌었다. 육군 제17사단 연주사에서 90여 군장병이 진지하게 문제를 풀고있다.



불교교리경시대회장인 자승 스님을 비롯한 행사 관계자 스님들이 초등부 교리경시대회 현장을 응원방문했다.



초등부에서 대상을 차지한 대구 관음사 구미법당 이해진 학생이 지도법사들과 친구들에 싸여 행거레를 받고 있다.

매년 응시자 늘어 올해 최다 참가
 불교계 인재발굴의 장 슈퍼스타 K
 수상자 장기적인 장학혜택 검토
 내년 영어교리경시대회 추진계안

어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물론 2012학년도 입학전형부터 동국대 금강대 위탁대 등 종립대 입학전형에 반영되는 경시고사로 청소년들의 관심을 모았다. 문제의 출제 범위와 유형은 평면과 비스듬했다. 부처님의 생애, 불교 입문, 전통 문화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시류를 반영하는 종교간 화합과 평화, 결사(結社) 등의 내용을 담은 문제를 출제했다.

이날 동국대에서 행사 관계자 스님들은 차담을 나누며 영어 골든벨, 영어교리경시대회, 주5일제에 따른 템플스테이 및 범포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차담에는 자승 스님, 보선 스님, 동국대 상임이사 성관 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 동련 이사장 심산 스님,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 등이 자리했다. 동련 이사장 심산 스님은 “영어 골든벨, 영어교리경시대회는 인재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제포교사와 협력해 교재를 마련하고 시험을 주

관하고, 동국대에서 협약하고 있는 해외유수대학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준다면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관계자 스님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답해 제4회 불교교리경시대회에서는 글로벌 인재 발굴도 함께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중고등부 및 군장병 시상 결과는 9월 20일경 발표되며 시상식은 10월 22일 개최된다.

시상은 개인부문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중종고 각 1명씩 100·200·300만원), 조계종 총무원장상(군장병 1명 50만원) △최우수상인 동국대 총장상(중종고 각각 2명씩 50·80·100만원), 조계종 포교원장상(군장병 2명 30만원) △우수상인 동국대 정각원장상(중종고 각 3명씩 30·50·80만원), 조계종 특별교구장상(군장병 3명 20만원) △장려상인 동국대 불교대학장상(중종고 각 10명씩 20·30·50만원), 군종특별교구장상(군장병 10명 10만원) △임상인 은정불교문화원 이사장상(참가자 상위10%)과 군종특별교구장상(군장병 참가자 상위10%)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된다. 그밖에 단체부문 시상과 함께 자원봉사, 문화재지킴이 등 신생활 등에 모범이 되어 준 학생 5명을 선발해 특별상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상과 장학금 100만원을 수여한다.

글=이상인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찬 덕 불 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 안산 월강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 흥은사

운장대 인등

운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아름다운 등

팔각점등등가등

크릭왕상

만월등

만월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월등

종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자기요: 98원/1kwh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왕2리 261-6 / 전화: 031)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기존 전자기요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시공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